

● 초대사의 말씀

문재인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핵심적인 대외경제정책이었던 동북아에서의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아세안의 수요를 활용하고,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동시에 러시아를 통한 유라시아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할 경우 한국은 좁은 내수시장을 극복하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며, 정체된 성장률을 높여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들 국가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나치게 높은 중국의존도를 낮추고 새롭게 성장하는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관심사인 환경 및 자원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만들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원 아시아'를 실현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 대외정책을 조망해 보는 이번 한국동북아경제학회의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셔서 뜻 깊은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7년 11월 3일

(사)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 이 두 원 드림

137-868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19길 13 한국산업개발연구원
BLD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사무국, 전화 02-820-5470
www.neak.or.kr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평가와 전망



일시: 2017년 11월 3일 (금) 13:30 -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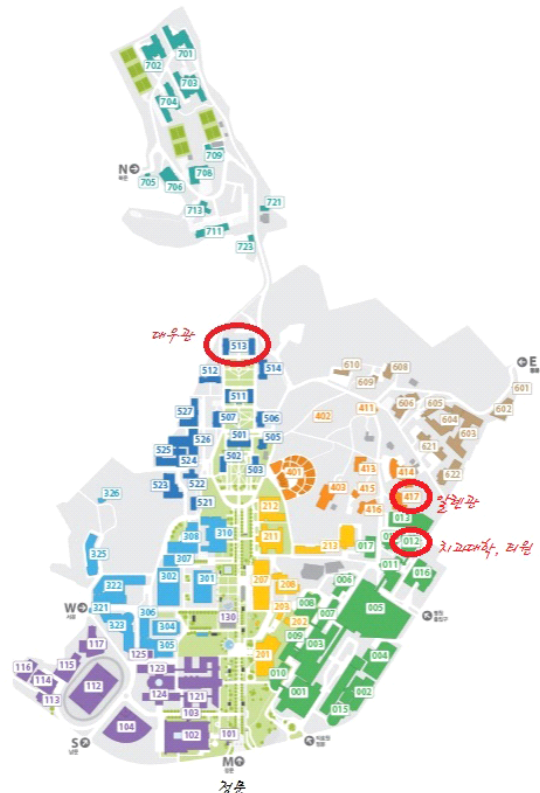
장소: 연세대학교 대우관 201호(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주최: (사)한국동북아경제학회

후원: 매일경제신문사



연세대학교 캠퍼스 지도



<프로그램>

- 13:30-14:00 등록 및 개회식
- 14:00-14:30 기조연설 및 기념촬영 (사회: 백훈, 중앙대)
개회사: 이두원,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
기조연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북방경제협력 위원장)
- 14:30-16:00 세션 I 문재인 정부와 동북아 경제협력
좌장 김시중(서강대학교)
발표 1 "신 정부의 미래 한중 경제협력 전망"
현상백(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토론: 남수중(공주대학교)
발표 2 "아베노믹스의 평가와 전망: 한일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김양희(대구대학교)
- 16:00-16:15 Coffee Break
- 16:15-17:45 세션 II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좌장: 강정모(경희대학교)
발표 3 "한-인도 CEPA의 경험과 자유무역협정의 심화 전망"
Vikram Doraiswami(주한인도대사)
토론: 박영렬(연세대학교)
발표 4 "한-러 경제협력 경험과 심화전망"
변현섭(북방경제협력위원회)
토론: 김영진(한양대학교)
- 17:45-18:15 종합토론
- 18:30-20:00 만찬(장소 추후 안내)

연세대학교 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2번 출구
주차권이 필요하신 경우 사전에 사무국(hoon@cau.ac.kr)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